광주 '스포츠 마이스 도시'로 뜬다

광주관광재단 사업계획 발표
'글로벌 마이스 스포츠도시' 선포
스포츠테마 관광상품 등 개발
전지훈련·대회 유치 등 활성화

광주관광재단이 광주를 '글로벌 마이스 스포츠도시'로 선포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2019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광주가 스포츠 관광 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광주를 '글로벌 마이스(MICE) 스포츠도시'로 선포하고 ▲스포츠 마이스 도시 광주 홍보 ▲광주다움 스포츠 마이스 행사 및 관광 상품 개발 ▲우수업체 발굴 등 인프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아울러 말하는 서비스 산업 용어다.

재단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2019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스포츠 경기 개최 경험과 양궁 기보배 선수, 체조 도마 양학선 선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광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스포츠 마이스 도시 광주' 홍보를 위해 '리멤버 광주'(Remember Gwangju) 온라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 중이다.

'리멤버 광주'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마스터즈대회의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기념하고, 경기가 개최됐던 광주의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이다.

광주만의 MICE행사 및 여행상품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는 2월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관광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지훈련단, 선수권 대회, 일반 시민 참여 스포츠 경기 등 광주 방문객 증대를 위한 협력을 논의 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 소재 대학 내 스포츠 학과, 학회와 협업해 스포츠 분야 특화 학술행사를 발굴하고, 협력여행사 공모를 통해 광주다움을 담은 스포츠 테마관광상품을 기획, 홍보, 판매해 '여행하고 싶은 광주'의 매력도를 더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골 향한 집념 "잡아도 쏜다"

26일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 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폴란드 선수가 독일선수 2명의 수비를 뚫고 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경 첫 올스타 최다 득표

프로배구 V리그 팬투표 결과 공개
남녀 통틀어 1위…남자부는 신영석

김연경

11년 만에 V리그 황제로 귀환한 김연경(흥국생명)이 최다득표로 '최고의 별'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올스타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총 11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온라인 팬 투표에는 총 12만2084표가 집계됐으며, 김연경이 8만2115표를 받아 남녀 최고 득표자가 됐다.

남자부에서는 신영석(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7만5824표를 얻으며, 전체 2위를 기록했다.

김연경은 국내 무대 복귀 후 1라운드MVP 수상을 비롯해 공격 종합, 서브 등 개인 기록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며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다.

신영석도 현대캐피탈에서 한국전력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 팀이 중위권으로 올라서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팬투표는 1일 평균 1만1099표를 기록하며, 지난 시즌 1일 평균 투표수인 6450표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팬 투표를 통해 K-스타팀 남자부 나경복·알렉스(이상 우리카드), 다우디·최민호·박경민(이상 현대캐피탈), 박상하·이승원(이상 삼성화재), 여자부 김연경·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 고예림·양효진·김연견(이상 현대건설), 김수지(IBK기업은행)가 올스타로 선정됐다.

V-스타팀은 남자부 정지석·임동혁·한선수(이상 대한항공), 케이타(KB손해보험), 진상헌(OK금융그룹), 신영석·오재성(이상 한국전력), 여자부 이소영·강소휘·안혜진(이상 GS칼텍스), 박정아·배유나(이상 한국도로공사), 한송이(KGC인삼공사)로 올스타팀이 구성됐다.

양효진은 12번째 올스타 영예를 안았고, 한선수는 10번째 올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원, 임동혁, 박경민은 생애 첫 올스타로 선정됐다.

역대 최다 올스타 기록은 14차례 올스타에 뽑힌 황연주가 가지고 있다. 여호연·김해란이 뒤를 이어 13차례 올스타가 됐다.

한편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는다. 대신 KOVO는 올스타로 선정된 선수들에게 특별제작한 올스타 트로피를 수여하다.

트로피는 26일 오후 7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올스타' 선수들에게 전달된다. 이날 남·여 최다 득표자인 흥국생명 김연경, 한국전력 신영석이 참석한 가운데 트로피 전달식이 열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스쿼시연맹 회장에 박세준

통합 2대 광주시스쿼시연맹 회장에 박세준 ㈜동방엔지니어링 대표(42·사진)가 당선됐다.

광주시스쿼시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광주시체육회관 스쿼시연맹 사무실에서 제5대 광주시스쿼시연맹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세준 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인 결과 임원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최종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박 당선인은 오는 2025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4년 동안 연맹 회장으로 활동한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5개구 스쿼시 가맹단체 결성, 스쿼시장 신설 등 인프라 구축, 협회 재정 안전성 확보 및 내실화, 동호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스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스쿼시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는 연맹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협회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 국가대표 자동 선발

남자 배드민턴 손완호, 7년만에 선발전 거쳐 태극마크

한국 배드민턴 남자단식의 '간판' 손완호(33·인천국제공항)가 7년 만에 선발전을 거쳐 태극마크를 달았다.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19·삼성생명)은 국가대표로 자동선발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6일 2021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남녀 단식 선수 각 8명, 남자 복식 선수 12명, 여자 복식 선수 12명 등 총 40명이다.

손완호는 남자단식 B조 2위로 선발전을 통과했다. 손완호가 선발전에 참가한 것은 2014년 대회가 마지막이었다.

손완호는 한국 배드민턴 남자단식 간판으로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했고, 2017년에는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다.

그러나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2019년은 거의 통째로 수술·재활로 보냈다. 국제대회에 뛰지 못하면서 세계랭킹이 하락했다.

손완호의 국가대표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지난 18~23일 전북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선발전에 출전해 다시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그 덕분에 손완호는 지난해 결혼한 여자단식 간판 성지현(30·인천국제공항)과도 계속 '국가대표 부부'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전혁진(26·요넥스)도 이번 선발전을 통해 약 3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전혁진은 남자단식 유망주로 기대를 받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상에 시달려 재활을 받다가 지난해 하반기 코트로 돌아왔다.

선발전에서 손완호와 전혁진을 B조 2·3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 태극마크를 거머쥔 이윤규(24·국군체육부대)는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남자단식 허광희(26·삼성생명), 여자단식 성지현, 안세영(19·삼성생명), 김가은(23·삼성생명), 남자복식 최솔규(26·요넥스)와 서승재(24·삼성생명)는 세계랭킹이 높거나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 자동으로 선발됐다.

여자복식의 이소희(27), 신승찬(27), 김소영(29), 채유정(26), 김혜린(26·이상 인천국제공항)과 공희용(25·전북은행), 장예나(32·김천시청)도 같은 이유로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태극마크를 유지했다.

여자복식 이유림(21·삼성생명)도 2018년 '여고생 국가대표'로 주목받다가 무릎 십자인대 수술로 이탈했었지만, 이번 선발전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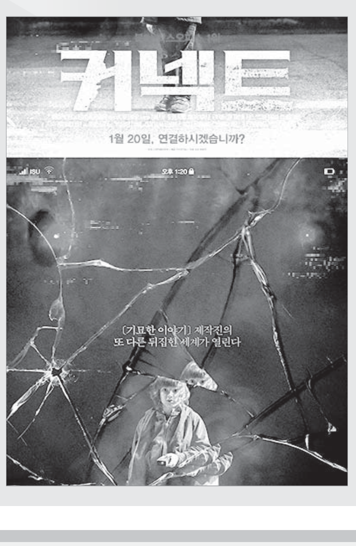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제1차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개최

광주시체육회가 26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개최했다. 준비위 위원장은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맡았고 김성남 광주체육고등학교장, 김영배 시체육회 이사, 김전근 변호사, 최길성 법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세자매,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학여행 제이티 르로이
4관	세자매
5관	소울, 신과함께-인과 연, 런
6관	소울
9관	소울, 북스마트
7관 씨네커플	커넥트, 모추어리 컬렉션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8관 씨네커플	캐롤, 도굴, 런, 이웃사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